

# 청명(淸明)을 기다리며

##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란 자각

### 이것이 나에게 왜 그리도 늦게 찾아왔던가?

입춘(立春)이 훨씬 지나, 죽은 듯이 땅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온갖 살아있는 것들을 소생시킨다는 우수(雨水)가 왔다.

올 봄에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을 뇌게 되는 꽃샘추위도 별로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보니, 봄은 벌써 내 마음 속에 연초록의 싹을 틔우고 있다.

사실 나는 왜 오래 전부터 올해의 봄을 유난히 기다려온 터였다. 좀 더 부인하자면 마치 중요한 약속이나 있는 듯이 최근 몇 년간을 줄곧 정해진 봄을 쉼없이 손가락 짚아 왔던 것이다. 왜 그렇게 2007년 봄을 기다렸나 하면 무슨 꽃구경이나, 산천유람을 가거나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굳이 성급하게 봄을 기다린 이유를 들여보자면 일종의 결행(결행)을 정해진 봄에 하고 말리라는 스스로의 다짐 같은 것을 내 마음 속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은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서두를 꺼낸 다음에야 대답이 될지언정 이런 저런 사정을 늘어놓을 수밖에...

사년 여 전 차례로 부모님을 영별(永別)하고, 어쩌나 온갖 것이 부질없이 느껴지고 삶이 허망하던지, 지금도 그 싸하고, 허전한 심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 누구나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러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와 사사건건의 견대립을 보여 왔던 나로서는 스스로가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던 것이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맞은 장례기간 동안 나는 낮이 빠져나간 돌초각상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십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사건건 반발을 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밀려오는 회한과 자책감은 나의 혼을 송두리째 빼놓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나는 나의 꿈이 있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야말로 나의 삶이다. 해서 나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나만의 세계를 확보(확보)하리라'는 식의 신념 아닌 신념을 부모님들에게 전해대고는 막 무가네로 내가 좋아하는 짓거리만 했으니, 참으로 어리석고 불효(不孝)한 생활이었던 것이다.

막상 일을 당하고 나서야 부라부라 무언가 속죄(속죄)를 위한 인연(인연)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만사휴(休)! 애별(愛別)과 오오성고(五蘊盛苦)만 덩그러니 가슴속에 가득할 뿐이었다.

장례를 치른 후, 나의 이런 신산한 심사는 엉뚱한 곳에서 틀어졌었다. 아내와 여동생, 제수씨들이 의견을 모아 훌륭한 물건을 분류한 다음, 나머지 정리할 물건들을 커다란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밖으로 막 들고 나갈 즈음이었다. 밖에서 돌아온 내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웅수월이 통기듯이 그 문지들을 낚아채었다. 씩씩거리면서 그

것들을 거칠게 풀어헤치고, 내용물들을 거실 바닥에 쏟아놓았다. 그리고는 낫날이 시큰함을 느끼면서, 그 잡동사니들 중에서 눈이 가는대로 물건들을 주섬주섬 주워 모았다.

한 옷가지, 안경, 도장, 낡은 지갑, 낡은 모자, 손톱깎이... 등등. 나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소리소리 질렀다.

"너들 이런 식으로 유품을 함부로 버릴 수 있나. 나중에 너들도 이렇게 버려질 줄 알아라! 매정한 것들 같으니라고!"

여자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허접 쓰레기들을 모아 두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상하게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두어라. 세상은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란다.'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씀과 압박이인가! 언제부터인가 나는 아들 녀석들에게 그렇게 말한 다음에는 어김없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는 버릇이 생겼다.

결국 아버지와 나와 아들 녀석은 별개로 존재

존재가 있을 수 있겠는가?

결국 '분별심(分別心)을 가지지 말라'는 법구는 '변별심(辨別心)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연법을 알아서 삶을 그려치지 말라'는 경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나는 정해진 봄에 굳히고 말 것 같다.

또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을 늘어놓고는 부모님과 인연(인연)을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바둥되는 나의 모습이 문득문득 애처롭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였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스스로 상당한 위안을 받은 것 같다. 아버지의 낡은 모자도 써보고, 주머니 것이 헤진 바지도 입어보고, 목직 안경도 끼어보고, 어머니가 애지중지 하시던 꽃무늬가 많은 보자기에 내 소지품도 싸보고... 그러나 만사가 성주공공(成住壞空)이라 했던가.

이렇게 유품들과 연관해서 받는 위안이란 옛 추억이 되살아나고 더불어 회한도 같은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슬프고 허무한 페이스스만 쌓여갈 뿐, 내 생활이 앞으로 나아가진 못했다. 지난겨울 눈발이 날리던 창밖을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제 때가 된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 이제 정리를 하자. 가벼운 인연(인연)들은 놓아버리고, 나 또한 갈 길은 가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지 나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는 방법이 당장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겨우내 공리를 하던 끝에 막연하게 봄이 되면 무언가 방편이 잡히리라 기대하여 봄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 방법은 제의적인 방법(제의)이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 공경(공경)하던 나에게 '반야심경'을 독송하던 중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다.

나는 날을 잡았다. 본격적인 봄 날씨가 접어든다는 청명(淸明)으로 말이다. 그날 나는 정리할 물품들을 들고, 약간의 제물(제물)을 준비해서 두 분의 묘소를 찾아가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향을 피우고, 정성스럽게 제물을 차려놓고, 반야심경을 독경하면서 두 분이 저 피안으로 가실 수 있도록 발원(發願)하리라.

나도 이번 봄에는 회한의 터널을 빠져나와 분별(分別)을 버리고, 인연(인연)에 순승(順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달라고 발원(發願)하리라.

청명(淸明)날의 발원문을 지금부터 따로 만들어 볼 것인 즉...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아제!



그림 · 이동수

## 그날, 묘소 찾아가 두 분이 피안 가시도록...

거나고 쏘아부쳤지만, 나는 이렇듯 알고 무슨 값나가는 골동품(골동품)이라도 되는 양 그것들을 차곡차곡 챙겨두었다.

나중에는 집 앞 슈퍼마켓에서 구해온 종이 박스에 그것들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포장(포장)을 해주었다. 그렇게 끈으로 격자 묶음까지 해서 들고 온 물건들을 내 집(집)에 쌓아두고 혹은 벽에 걸어놓고, 나는 은밀히 변형된 삼년상(三仙上)을 치루고 있다는 비장(非將)감마저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벌써 삼년 여의 세월이 흘러버렸다. 이제 아들 녀석들도 대학에 입학하여 객지(客地)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아들들을 만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당부(당부)를 한다.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아침밥은 꼭 챙겨먹고, 몸을 너무 혹사(혹사)시키지 마라. 지금은 젊어서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몸이

하지 않았고, 아마도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무한한 인연(인연) 속에 내가 잠시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 이후로 나의 뇌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인연(인연) 속에 잠깐 현재(現在)하는 존재(존재)가 아니던가? 혼자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삶)이라고 하는 자각(自覺). 이것이 나에게 왜 그리도 늦게 찾아왔던가?

나는 분별심(分別心)이란 말의 뜻을 이제 알 것 같다. 나에게 분별심이란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것 등을 변별(辨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따로 분리(分離)되어(分), 별개로 존재(存在)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만물이 인과(因과) 연의 법칙(法則), 환연(환연)해서 인연(인연)법에 의해 생멸(生滅)할지도 어찌 단절(斷絶)된 독자( 독자)의

이란 말도 분별독존(分別獨存)의 뜻이 아니라, 인연(인연)법이 비록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필연(必然)의 그림자(影)라 할지라도 주제(主體)적인 향(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부(當分)의 말씀(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생각을 잇다보니 수처(主)적 입체(入體)작진(數處作主 立處皆眞)이란 구절(句節)도 인연(인연)법을 속명(속명)으로 오해(誤解) 말고 인연(인연)법(法) 속에서도 주제(主體)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자상(自相)한 배려(배려)가 아니겠는가 하는 자각(自覺)을 해 본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는 없지만, 물속에서 자유롭게 수영(수영)하듯이 그렇게 절제(節制)된 자유(自由)를 말씀(말씀)하시는 것이리라.

애기가 너무 비약(非約)돼서 엉뚱한 길로 접어들 것 같다. 갈피를 잡아 올봄(올봄)에 결행(決行)해야 할 나의 제의(祭儀)로 돌아가도록 하자. 가족(가족)이나 좀더(좀더)터진 나의 작업(작업)실(실)에 잡동사니(잡동사니)들



강인석 부산 출생, 연세대학교 졸업. 2003년 <문학나무>(여름호)에 '무풍에서'로 추천 등단. 현재 미니픽션 작가모임 정회원, 한국소설가협회 사무국장.

## 미타선원 선방 산철결제 방부안내

편안히 오셔서 수행의 즐거움과 법열(法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심 속의 참선전문 수행도량 미타선원의 재가선방 첫 동안거가 20여명 수행자들의 뜨거운 수행열기와 원력으로 원만히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행의 열기를 오롯이 이어서 동안거 해제 후 산철에도 결제를 계속합니다. 이에 뜻이 있는 분들은 방부접수 하시어 수행의 법열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 ◆ 방 부 : 선열당(禪悅堂), 안심당(安心堂) 각 20여명
- ◆ 입방일 : 3월 17일(토) 오후 2시
- ◆ 접 수 : 051)253-8687
- ◆ 위 치 :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점 (남포동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로 누구나 편안히 오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부산시 중구 광복동 2가 1-11번지 / www.mitazen.net

## 전국비구니회 법화산림

### 비구니 32법사스님 특별초청법회

금년 전국비구니회에서는 비구니의 진흥 발전과 불자님들의 신심고취를 위하여 '법화산림' 특별법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법사스님은 관세음보살 32응신을 상징하여 전국비구니회에서 추천된 32법사스님을 초청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원합니다.

- 일 시 : 2007년 3월 11일 ~ 10월 21일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통사 대법당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의료원 부근)
- 문 의 : 02)3411-8103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